유영일의 '참나' 찾는 **행복한 책읽기** ⑨ 마이클 뉴턴의 '영혼들의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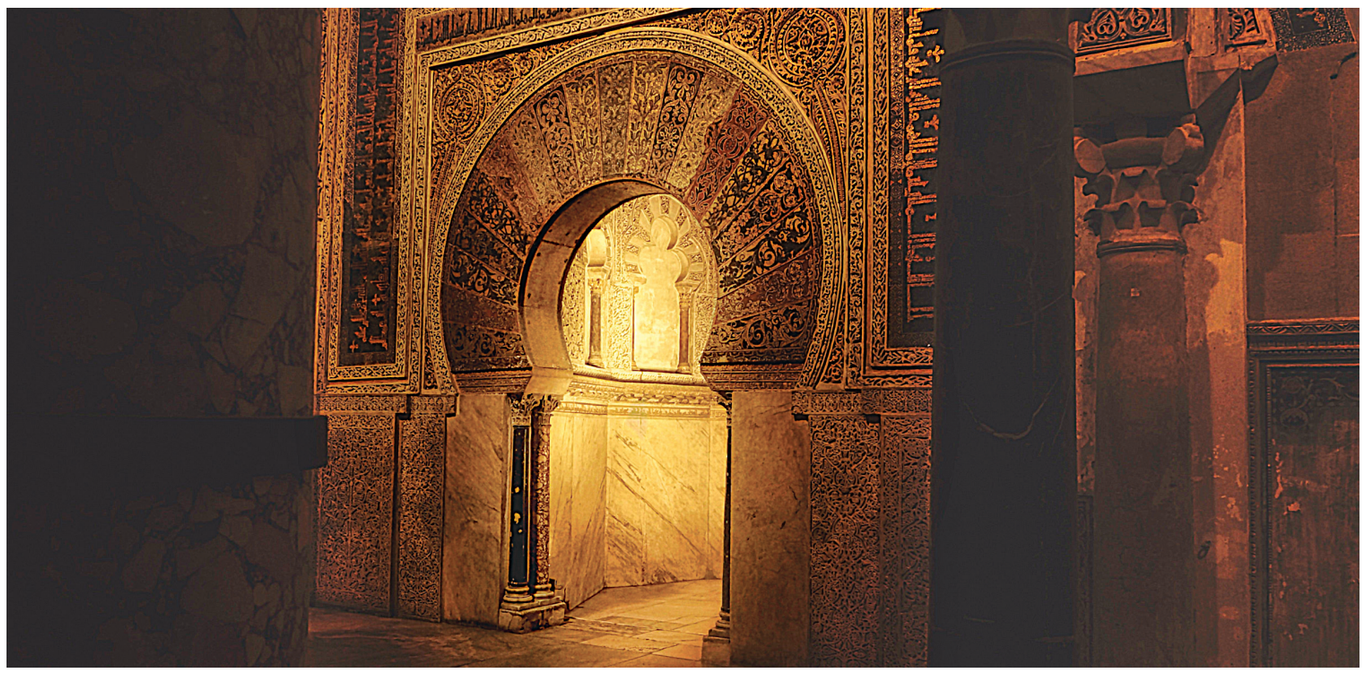


▶ **한줄 요약**
윤회전생에 대한 인식이 지금의 삶에 안정을 가져다 준다.

무지의 불확실성, 지혜 탐구 원동력



마이클 뉴턴(Michael Newton)은…
상담 심리학자이자 최면요법 마스터. 최면요법을 통해 내방자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난제들을 해결하고 치료하면서, 삶과 삶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주목하게 되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배우러 이 고단한 삶에 참여하게 되었나? 이번 생에서 내가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이 삶을 가장 잘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오래된 인류의 의문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연구 자료를 토대로 해답을 제시해 준다. 〈영혼들의 여행〉이 베스트셀러로 떠오르면서 세계적인 명강사로 활동해 왔으며, 후속작으로 〈영혼들의 운명〉, 〈영혼들의 기억〉이 있다.



*** 지구로 돌아가기 위해 육체를 선택하는 방법**
*** 다양한 수준의 영혼들(초보 단계, 중간 단계, 고급 단계)과 그 특성**
*** 소울 메이트를 인식하는 방법과 삶의 목적**

지도책은 왜 중요한가

걱정과 불안은 질병보다 무섭고, 두려움과 공포는 전쟁보다 무서운 적이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신경이 쇠약해지고, 혈압이 높아지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오지 않는다. 세균에 의한 병보다도 더 무서운 이런 불안과 걱정, 두려움의 질병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대개는 전체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무지(무명)에서 비롯되고, 무지로 인한 앞날의 불확실성이 그 원인일 것이다. 무지와 불확실에서 오는 불안과 고통이 생을 잠식하고,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다.

이런 불확실성, 이런 무지는 어찌보면 생래적인 것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는 어디에서 이번 생으로 들어오게 된 것인지, 기억을 삭제당한 채 눈가리개를 하고 이 지구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이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알게 하는 지도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큰 그림에 눈 뜨게 하는 영혼 좌표

〈영혼들의 여행〉은,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큰 그림에 눈을 뜨게 하는 지도책이다. 최면치료사인 뉴턴 박사는 삶과 삶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윤회전생의 큰 그림을 그리게 해준다. 뉴턴 박사가 기록해 놓은 29명의 특별한 이야기들을 통해, 독자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 죽음 직후에 보고 느끼는 것**
*** '영혼의 가이드들'에 대한 진실**
*** 죽음을 혼란스러워하는 영혼들에게 생기는 일**
*** 특정한 영혼 그룹에 속하여 이루어지는 쉼과 통찰과 내일에 대한 설계**

뉴턴 박사는 전생을 통해 문제해결의 단서를 찾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윤회전생을 하는지, 그 원리를 터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나게 깨우쳐 준다. 방정식을 푸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이해하고 깨치는 것이 중요하듯이, 삶과 삶 사이로 들어가서 윤회전생의 원리를 이해하고 터득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게 하여 삶을 수월하게 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지도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더 이상의 방황은 있을 수 없다. 안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면서' 살 수 있는 길은, 이 인생이라는 마당이 얼마든지 마음 푹 놓고 뛰놀아도 되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알고 실감하게 될 때 비로소 터득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떠한 인생도 스스로 선택한 결과

뉴턴 박사의 리드에 따라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경험한 피험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은 충분한 검토 끝에 설계되고 각자 스스로 동의한 것이다. 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는 '돌아온 영혼들을 맞이하는 공간'에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쉼을 통해 충전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난해에 개봉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끈 애니메이션 영화 〈소울〉에는 지구에서 태어나기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한 영혼이 등장하고, 그 영혼으로 하여금 지구에서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할 목적으로 멘토가 배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뉴턴 박사의 책들이 근거와 배경이 되어주었던 것 같다.)

전생 탐구로 인생 살펴
가이드 있는 목표 제공
진화의 끊임 없는 여정

영계에서는 그 어떤 일도 강제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 영혼을 맞이하는 공간은 편안하고 아늑하며, 안내자들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다음 생을 위한 청사진은 영혼 스스로가 결정하는 수련의 심도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영혼이 비교적 쉬운 인생을 살고 싶어하여 이번 삶이 자신의 영혼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었다면, 다음 생에는 더 어렵고 험난한 삶을 택해서 환생하게 되기 쉽다. 비극적이고 괴로운 인생을 택한다면, 상대적으로 편한 인생에서는 배우기 어려운 소중한 교훈들을 배우게 될 것이 자명하다.

불편한 신체를 가진 사람들은 유전적인 잘못이나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한 사고가 없었더라면 더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 불편한 신체 또한 영혼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영혼이 불구의 몸 속에 있게 되면 장애를 극복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영혼의 발전이 촉진된다.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부족함 없이 살던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쾌락에 치우쳐 삶을 낭비하고 살았다면, 다음 생에는 신체 장애로 인해 누워 있는 시간이 많은 인생을 선택할 수도 있다. 누워 있는 시간이 많으면 책을 많이 읽게 되고, 비어 있는 시간 동안 마음을 닦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래서 삶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확장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생, 마음껏 뛰놀아도 되는 운동장

큰 의류회사를 경영하는 사업가가 있었다. 그는 불만과 요구 조건을 늘어놓기 일쑤인 직원들로 인해 늘 회사 운영의 어려움을 실감하곤 했다.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는 규제를 강화하거나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으로 해결해 왔다. 두 번 이혼한 전력이 있고, 알코올 중독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했으나 중도에서 그만두고 말았다.

그는 최면여행을 통해 생후 일주일도 안 된 영아였던 자기를 어머니가 교회 문앞 계단에 버려두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외롭고 불행한 유년기를 고아원에서 보낸 뒤, 그는 어느 나이 든 부부의 양자가 된다. 양부모들은 엄격한 사람들로, 그를 늘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십대에 그는 집을 떠났고, 법에 저촉되는 일을 수없이 행하였다.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그렇게 꼬이게 된 것일까. 최면 여행의 현장을 요약하여 옮겨 본다.

"당신은 태어난 지 일주일쯤 된 영아입니다. 당신을 낳은 어머니가 떠나려고 마지막 작별을 고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광주리에 들어 있습니다. 영아인 저는 색이 바랜 푸른빛 담요에 감싸여 있습니다. 어떤 계단 위로 광주리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몹시 춥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교회 앞에… 누가 나를 내려놓고 갔습니다."

"누가 당신을 그곳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가 …허리를 굽히고 저를 내려다보면서…작별을 고하고 있습니다. (울기 시작한다) …어머니는 젊은 여자입니다. … 저를 낳게 한 아버지는 이미 다른 여자의 남편입니다. 어머니는 울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저의 얼굴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를 쳐다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눈물로 목이 멘다) "흘러내리는 검은 머리… 어머니는 아기인 저에게 입을 맞춥니다. …어머니는 저를 거기에 두고 갈 수 없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집니다."

"떠나기 전에 어머니가 하신 말이 있습니까?"

(감정이 복받쳐 겨우 말한다) "나는 너를 위해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너를 양육할 돈이 없다. 부모님들도 도와주지 않는다. 나는 너를 몹시 사랑하지만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고 내 가슴속에 품고 있을 것이다."

"오, 어머니는 결국 저를 마음으로는 버리지 않으셨군요. 저를 원하셨고… 사랑하셨고… 저를 떠나기를 원치 않으셨군요."

"양부모와 함께 살았던 때를 이야기합시다. 그분들에 대한 당신의 느낌은 어떠했습니까?"

"그분들은 한 번도 저를 흡족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무엇인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조종하고, 판단을 내리곤 했지요. …정말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늘 화가 치밀고,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절망감에 휩싸이곤 했던 그 원인을 이제야 알 수 있었다. 원인을 아는 것만으로도 치유는 큰 걸음을 뗀다. 더구나 영아였을 당시 자신이 버려진 것이 결코 사랑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큰 빗장 하나가 열린 셈이다.

그렇다면 그를 버리고 떠나간 생모와는 전생에 어떤 관계였을까? 다시 최면 여행을 통해, 그는 오래전 아라비아 반도에서 한 부족의 족장으로 살았던 전생을 소환한다. 그는 족장으로서 생모였던 여인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적이 있다. 여인이 창고를 부수고 들어가 먹을 것을 훔쳤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의 명령을 어겼고, 그의 권력을 훼손했던 것이다. 그는 식량 분배를 부족민을 다스리는 도구로 쓰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에게 충성을 바치게 했다. 그래서 법을 어긴 그녀를 본보기로 벌을 받게 한 것이다.

여인과 그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인과응보의 연속선상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냉철하게만 볼 일이 아닌 것이, 여기에는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이 스며들어 작용하기 때문이다. 삶에서 삶으로 이어가는 여정은 인과응보의 연속상이라기보다는 진화의 끝없는 여정이고, 더 큰 사랑을 배우는 교실이다. 마침내 큰 사랑에 안겨서 안도하고, 그 사랑을 결국 내 안에서 키워서 그 사랑을 '베푸는 마음 없이 베풀기 위한' 긴 여정인 것이다. 이 우주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놀이터이고 배움터이다. 우리 모두는 이미 큰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 우리의 제한된 시야로 인해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실감하고 있지 못할 뿐이다. 〈작가〉

불기 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축하광고 접수 받습니다

거룩한 삼보에 귀의 하옵니다.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아름답게 수놓은 꽃의 새봄입니다.
사바세계의 몸을 나투시어 모든 중생의 앞길을 밝혀 주시기 위해
우리 곁에 오신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왔습니다.

건강과 평화를 함께하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으로
辛丑年 봉축특집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지러움을 희망과 나눔의 등불로 가득 비출 수 있도록
자비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지사지국 접수처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대구지사	010-2813-8008	손문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현대불교
Tel. 02)2004-8216 Fax. 02)737-0698 E-mail. jabi2018@naver.com

승가전통 건강활력
마가목(원탕)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산삼 캐는 심마니가 산에 갈 때는 꼭 마가목 지팡이를 짚고 가야 기운이 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2개월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KBS1,2 TV 건강하게삽시다,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내고향 스페셜, MBC TV 고향이 좋다. 방영
■ 2019.10.31.(목) KBS1 저녁 7시 40분 한국인의 밥상 설악산「마가목」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문의 010-9049-2848 (공휴일·야간전화 금지)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침향 향기나는 초
침 향 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육각초 연꽃칠성촛대


침향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꽃 크리스탈 촛대 연꽃촛대

양초 보시 대행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